

예수교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 조감도

1982.10.10. 창립

위임 목사 **이 재 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믿고 순종하는 교회

전 교인 기도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 항상 기도제목

- 1) 위임목사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3) 구제

■ 2022년도 기도제목

- 1) 불가능이 없는 믿음 (마가복음 9:23)
- 2) 거룩한 자녀 (데살로니가전서 4:3, 디모데전서 4:5)
- 3)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마태복음 21:12~13)
- 4) 재창조의 권능 100% (에스겔 37:4~10)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이수진(당회장 직무대행)
(남) 안성현 조대회 조혁희 조수열
주현철 정규원 김영식 장성식
정현진 이풍근 임학영 박광현
이석규 정진영 조성도 김성덕
노영진
(여) 이미경 최영자 이미영 이성숙

선교 목사/ 페르난도 보르본

협동 목사/ 문신현

전 도 사/ 김영순 권영남 차경숙 최영신
이영인 황미경 최성숙 서덕분
박금미 오인숙 곽윤진 윤영자
임금선 황미선 조은영 강순길
황금란 정영임 임해숙 문순미
장정미 류순주 고경아 최시은
김진주

평신도 교역자/ 김복례 권순희

기도원 교역자/ 김영식

지교회 교역자/ 문대규 정철수 이행업 박홍영
김요한 강승표 박형렬 박재영
최제수 서진범 김창숙 박종대
황병덕 오환준 김혜경 차찬환
강영식 이성철 윤진영 김정오
김상휘

해외선교사/ 아프리카: 정명호, 한진범, 김은주, 김종훈,
폴 무사파리 날완고(협력), 자코 네마 사카텐다(협력)
일 본: 정경태, 도끼꾸니 야스히로, 고마즈 미끼, 도끼꾸니 미야고
중 남 미: 페루·콜롬비아 장영연, 온두라스 에스테인 할달
러 시 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미 국: 남상송
캐 나 다: 이성일
영 국: 제인 음폴로고마, 데이빗 무카사
독 일: 이바울
몰 도 바: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대 만: 김경희
필 리 핀: 조찬형, 성 숙, 김은자, 김주범
인 도: 김상휘
몽 골: 발자릭 푸레브, 안흐바야르 간바타르
말레이시아: 지정훈
인도네시아: 자바르 H 시라이트, 메르나 탐바
파키스탄: 윌슨 존 길, 타리크 지아
중 동: 보나 시투아탈라 은심바, 알렉산드르 우라조프

원로 장로/ 이정호
장 로/ 빈성건 이동립 최종태 이주월 추오동 이시헌 박광호 유익선 최정수
오세영 박영준 이기세 정안권 박노철 김왕기 박현재 박경준 최을호
김대석 성낙훈 김홍만 김규식 송왕근 김진홍 송석길 이강준 장영규
이익석 임영석 김종태 김용석 정택수 조휴용 윤성식 김기호 박홍열
박영갑 김봉완 홍영일 김준호 이강복 김용덕 윤창수 이재환 권대봉
채윤석 김석환 진교승 황병현 박성준 최병술 이덕행 최혁수 허은범
정태찬 고광규 임종서 서희성 신상문 정성규 김부삼 정성식 이상원
마문국 마수용 이윤석 김한구 김순오 마문복 유승렬 손영락 윤부열
박중용 송영현 이성의 정명호 정용필

명예 장로/ 김영선 김세원 윤석재 이교순 강재관 김영조 이성철 마광희 장세웅
서근중 최신일 한병용 나중규 이기완 한홍렬 김재규 한광현 심상식
오성준 하문복 허영욱 배철호 김영남 서상기 문경진 박진무

협동 장로/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정용채

지 휘 자/ 임마누엘 성가대: 김한구 살롬 성가대: 박중용
나 사 렛 성가대: 이영철 금빛 성가대: 이영철
흰 들 성가대: 서승원 넋시오케스트라: 김한구

반 주 자/ 민연홍 김서영 이현미 손은혜 김선자(오르간) 김보석

* 표는 일어서서

개회송영	주 악
기 원	사 회 자
* 개회찬송	9장 1절	다 같 이
* 성시교독	24번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자복기도	다 같 이
찬 송	458장	다 같 이
기 도	최영자 목사
성경봉독	요한일서 2:24~25, 15~16	사 회 자
찬 양	굳건한 반석이시니/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설 교	3차 영훈육(9)	당회장님
기 도	다 같 이
환자기도	영상	당회장님
찬 송	만민 찬양 174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광 고	사 회 자
봉헌기도	사 회 자
새교우환영	사 회 자
* 축 도	영상	당회장님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일 저녁예배

주일 오후 3시
사회/ 장성식 목사

대표기도	반금선 권사
성경봉독	욥기 5:1~7/ 사회자
찬양	만민의 왕/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송	윤권능 형제
설교	욥기 강해(8) - 육적인 인생관과 영적인 인생관/이수진 목사(당회장 직무대행)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사회/ 박광현 목사

대표기도	이형진 집사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3:3/ 사회자
찬양	금빛성가대
설교	모든 것을 다 내어 줄지라도/ 이미영 목사

금요 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시
사회/ 박형렬 목사

대표기도	문태규 목사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4:1~3/ 사회자
찬양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30)/ 당회장님

2-8회 19차 다니엘 철야

시간/ 매일 오후 9시 ~ 11시 (금요일은 제외)
인도/ 이복님 원장
기간/ 3월 28일(월) ~ 4월 17일(주일)
주제/ 성전이전, 재정, 영혼구원을 위해

새벽 예배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자문에
협조하기 위하여 추후 공지 시
까지 새벽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주 예배 위원

예배	사회	대표기도
주일 대예배	정진영 목사	노영진 목사
주일 저녁예배	이석규 목사	장정미 전도사
수요 예배	정현진 목사	박금미 전도사
금요 철야예배	조대희 목사	김진홍 장로

강단헌화
갤러리



제 목 : 3차 영혼육 (8)
 본 문 : 요일 2:24~25, 15~16

지난 시간에 이어 육에 속한 것들을 버리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육신의 정육과 안목의 정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육과 안목의 정육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모두가 썩어질 육의 것이며 이러한 육의 것을 사랑하는 이상은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말씀을 보면 육을 벗어 버리라는 말은 결국 육신의 정육, 안목의 정육,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는 말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 육을 취하게 만드는 육신의 정육, 안목의 정육,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육, 안목의 정육, 이생의 자랑’이란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썩어질 육을 취하게 만드는 원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육을 좋게 느끼고 사랑하게 하며 세상 것들을 취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즉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으라는 뱀의 미혹을 받았을 때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워서 육신의 정육을 자극하며, 보암직도 하니 안목의 정육을 일으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도 불러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 정육들을 받아들이니 선악과를 따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고 따 먹기에 이르렀지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맛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를 얻고 싶다는 정육들이 동하니 이 정육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도록 하와를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죄악이 좋아 보이고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육신의 일을 행하고, 결국 육체의 일까지 범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육신의 정육, 안목의 정육,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을 벗어 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세 가지를 끊어 버림으로 육을 취하기 원하는 마음이 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마음에서부터 육을 벗어 나가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에 물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먼

저 깨달으면 이런 정욕들을 더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 먹는 것이 곧 사망이요 엄청난 고통의 길인 줄 알았다면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느껴졌을 리가 없습니다. 먹고 싶기는커녕 만지기도, 바라보기도 싫었겠지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육의 것을 취한 그 결과로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되고, 최후에 당하게 되는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정녕 깨닫게 된다면 육을 추구하는 마음들을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육을 벗어 버리기 위해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세 가지

1) 육신의 정욕

지난 시간에 육신의 정욕에 대해 설명하다 마쳤는데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육신을 좇아 범죄하게 하는 속성'이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술을 끊지 못한 초신자의 마음에는 '술 취하기 원하는 육신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육신의 정욕이 동하게 되면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술 취하려는 육신의 정욕이 사람을 충동질해서 실제로 술을 마시는 육체의 일을 행하기까지 이끌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록 초신자요 믿음이 여리다 해도 기도를 충만히 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은혜를 받으며 성령이 충만할 때는 육신의 정욕이 쉽게 동하지를 않습니다. 마음 한편에 육신의 정욕이 생긴다 해도 즉시 진리로 물리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기도를 쉬고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원수 마귀 사단으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부추길 수 있는 틈을 내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차단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음으로 육을 취하려는 마음보다 영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 대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 있다' 생각하는 일꾼들이라 해도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해도, 기도를 쉬게 되면 성령 충만이 떨어지게 되고 육신의 정욕이 틈탈 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범죄하기도 하고 자칫하면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쉬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 잘못된 길을 택하기도 하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는 결코 쉬지 않는 기도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때로는 잠수실 시간이나 주무실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셨지만 결코 기도를 쉬지 않으심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시며 그 섭리를 이뤄 가신 것입니다.

2)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을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보고 듣고 느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음에 안목의 정욕이 들어오게 됩니다. 곧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마음에 작용하여 느낌으로 와 닿고, 그로 인해 안목의 정욕이 생기는 것이지요.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것은 아무리 보고 듣는다 해도 별 느낌이 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게 잘 익은 사과와 맛이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하던지” 하고 감탄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이때 사과라는 것을 본 일도, 먹어 본 일도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어도 식욕이 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잘 익은 사과를 먹어 보았고, ‘맛있다’고 느꼈던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벌써 입안에 침이 고이게 되지요. 예전에 먹어 봤던 기억이 떠오르고 다시 맛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면 시장에 가서 사먹는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지요.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볼 때 육의 느낌과 함께 받아들여 놓으면 다음에 비슷한 장면을 볼 때 이전과 같은 느낌을 이끌어 냅니다.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한 말을 듣기만 해도 예전의 느낌이 기억나고 그로 인해 안목의 정욕이 유발될 수가 있지요.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여면 육신의 정욕을 유발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안목의 정욕을 받아들임으로 큰 연단을 자초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높은 곳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심히 아리따워 보였다’ 했습니다.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다 해도 즉시 고개를 돌리고 보지 않으면 더 이상의 범죄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보는 것을 통해 안목의 정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육신의 정욕이 동하게 됨으로 그 여인이 남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취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충성된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하는 살인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지요.

그 결과 하나님께 심히 책망을 받았을 뿐 아니라 회개한 후에도 죄에 대해 큰 보용으로 많은 수치와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순간의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지 못함으로 심히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 역시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갔던 인물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리고 성을 공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서 얻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명하셨지요. 그런데 아간은 전리품 중에서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보고 그만 안목의 정욕이 틈타서 몰래 감춰 두었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다음 전투에서 많은 사망자를 내고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아간 자신도 그 범죄가 밝혀짐으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요.

순간적으로 안목의 정욕이 틈다서 탐심을 좇아 도적질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안목의 정욕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하며 비진리의 것들을 접할 만한 장소는 아예 가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쉬지 않고 금식하고 철야하며 욕을 뽑아버리고자 애를 쓴다 해도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지 않고 있으면 육신의 정욕이 더 힘을 얻고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이 쉽게 버려지지도 않고 죄와 싸우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지요.

비유 들어, 전쟁에서 성 안의 군사들이 성 밖으로부터 지원군이나 군사물품을 계속 공급받으면 계속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 밖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성 안의 적군을 멸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 안의 적군을 멸하려면 먼저는 성을 포위하고 지원군과 식량, 무기 등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해 해야 하지요. 그렇게 차단한 상태로 계속 공격을 하면 결국 성 안의 적군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 안의 적군이 자기 안의 비진리, 곧 욕이라고 하면 성 밖의 지원군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원군을 차단하듯이 안목의 정욕을 철저히 차단해야 기도하고 금식하며 죄를 벗으려는 노력이 신속하게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비유를 들어 보지요. 더러운 물이 담긴 그릇 안에 깨끗한 물을 계속 채워 넣으면 결국은 깨끗한 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깨끗한 물을 채워 넣으면서 동시에 더러운 물도 함께 부으면 아무리 시간이 가도 그릇 안의 물이 깨끗해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목의 정욕을 통해 욕을 계속 받아들여지게 되면 성결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더디게 되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죄 버리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듣고 계속해서 안목의 정욕을 취하면서 죄를 버리기 어렵다고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못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안 버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철저히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마음에 있는 죄성들을 다 벗어 버리고 깊은 본성 속에 있는 것, 미세한 욕의 것들까지도 다 발견하여 벗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 : 욥기강해 (7) - 영의 분별과 영적 교만

본 문 : 욥기 4:12~21

오늘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영적 체험을 살펴보면서 영의 분별을 하는 방법과 영적인 교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는 만큼 범사가 잘되며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영적인 분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정작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혼이 잘되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되지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잘되며 영적 분별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1. 엘리바스의 영적 체험

깊은 밤중에 엘리바스는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이 번거로웠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을 밝히 아는 상태는 아니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없는 상태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니 두렵고 떨렸지요(욥 4:12~14). 어떤 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니 몸에서 털이 쭈뼛쭈뼛 솟기까지 했고, 어떤 영이 와서 섰는데 그것이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욥 4:15~16).

이때 엘리바스의 귀에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데,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욥 4:17)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인생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더 성결될 수 없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며,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의로워지고 성결되어 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 해도 하나님의 선에 닿을 수는 없으니, 엘리바스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성결될 수 없다고 한 여기까지의 말은 진리이지요.

그런데 사단이 미혹할 때는 진리와 비진리를 교묘하게 섞어서 상대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이어야 합니다.

2. 영을 분별하는 방법

영 분별이란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 성령의 음성과 육신의 생각, 선과 악, 참

과 거짓, 의와 불의 등을 하나님 뜻에 따라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을 분별하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진리의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고후 10:5).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뜻과 영계의 법칙을 알고 영 분별의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 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은 외모를 보고 “선해 보인다” 또는 “악해 보인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므로 상대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려 주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기도 하고, 영안을 열어 분별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요일 4:6)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영의 사람 되기를 소망한다 하면서 비진리의 말을 즐겨 듣고 함께 말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영 분별의 능력이 없음은 물론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 할 수도 없지요. 판단 정죄하는 말, 수군거리며 험담하는 말, 서운해하며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듣기를 좋아하고 있으니 예배하고 기도하여도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진리가 없고 지식으로만 담아두니 영 분별의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3.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종과 믿지 않으시는 종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욥 4:18)라고 한 말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 연단하여 쓰셨습니다. 모세, 엘리아, 사도 바울 등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운 종은 다 믿으셨지요. 예지 예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미리 다 아시고 그 그릇됨에 따라 종을 믿고 뽑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에 믿지 않으셨지요(요 6:64).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종이 있는가 하면, 예지하시고 섭리 가운데 믿고 세우시는 종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오해하여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친히 부리시는 사자 곧 천군 천사들이 미련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사자를 세우셨으면 그 사자를 미련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말씀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을 쓰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척하고 교만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선한 사람을 택하여 쓰신다는 의미이지요.

성경을 보면 요셉, 다니엘, 사도 바울 등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고, 아직 영적 분별을 할 만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그만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해도, 그것이 100%가 되기까지는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스스로 분별하는 훈련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아직 확실히 분별하지 못할 때는 함부로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마음먹은 대로 실행하지 못할 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마 26:41)라는 말씀을 잘못 인용하여 변명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경우입니다(출 20:7, 레 19:12).

만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자기 생각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한다면, 이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한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4. 엘리바스의 교만

엘리바스는 욕을 비유하여 말하기를, 흙집에 살며 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사람이며, 조석 사이에 멸한 사람이라 합니다(욨 4:19~20). 동방의 부자였던 욕이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빈털터리가 된 구차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어날 기력도 없이 완전히 망한 욕을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욕기 4장 21절에, 장막 줄을 뽑아 버린다는 것은 아예 근거까지도 없애 버린다는 뜻입니다. 엘리바스는 욕이 다시 회복할 기미가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상태라고 말하며, 그러한 자들이 죽을 때는 지혜도 없다고 비꼬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율법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막상 자신들은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 판단 정죄하였지요.

사람은 저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을 말할 때, 내 생각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설령 상대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명백히 위배된 모습이라 해도, 이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모습인 것입니다(약 4:12).

옳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아직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옳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며 비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이상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원수 마귀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5. 육적인 교만과 영적인 교만

육적인 교만은 육적인 조건에서 자기가 상대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분야를 드러내어 자랑하기 원하며 우쭐하여 남을 무시하는 등 겉으로 쉽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진리를 배우면 육적인 교만은 비교적 쉽게 발견하여 버릴 수 있지요.

이에 비해 영적인 교만은 발견하여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로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마음에 이루지 못했으면서 자신이 이룬 줄로 착각할 때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직분이 높아지면 자신의 믿음도 그만큼 성장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믿음은 좋다 생각하니 다른 사람을 볼 때 쉽게 차별하며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나름대로 믿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부심이 있으므로 남의 권면이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지요.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영안이 열리는 등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것, 혹은 영적인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사명 감당을 오래 하여 그 분야에 경륜과 능력이 쌓인 것 등으로 인해 '내가 더 잘 안다' 하며 마음이 높아져 버리는 것도 영적인 교만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육적인 교만은 물론 영적인 교만의 모습이 없는지 점검하며,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쌓아 가면 영적인 교만까지 더해져서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무장하여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아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영으로 분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4과 가상철언 (3)

읽을 말씀 / 요한복음 19:30, 누가복음 23:46

외울 말씀 / 히브리서 10:20

참고 말씀 / 마태복음 27:51~53

교육 내용 /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남기신 가상철언 중 6언, 7언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한다.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과 발은 체중에 못 이겨 살이 찢어졌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머리에는 뾰족한 가시가 살을 파고들어 얼굴이 온통 피로 물들었습니다.

채찍에 맞아 상처투성이가 된 몸으로 뜨거운 햇볕 아래서 계속 피를 흘리셨으니 그 고통의 깊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서는마침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채 운명하셨습니다.

제6언,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약 3년에 걸친 공생애를 마치고 아무 죄 없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심으로 인간 구원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고백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밤낮없이 진리로 가르치셨고, 죄로 인해 질병과 연약함에 매인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 쉬 없이 일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망으로 가던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을 위해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 구약의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이로써 원수 마귀 사단의 진을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셨기에 “다 이루었다” 고백하신 것입니다.

또한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좇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구원의 섭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모든 것을 이루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곧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 영적인 사랑(고전 13:4~7)과 성령의 열매(갈 5:22~23)와 팔복(마 5:3~12)을 이루어 주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명을 충성되어 감당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합니다.

제7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여섯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며 물과 피를 쏟았기 때문에 운명하시기 직전에는 기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큰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운명하셨습니다.

가상철언 중 제4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제7언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죄를 대속해 주는 제물로서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도 사람처럼 영과 혼과 육이 있음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지만 영혼은 누구도 죽일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살전 5:23)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영혼은 장막인 육을 떠나게 됩니다. 영혼이 떠난 몸은 썩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져 세세토록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눅 16:19~31).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영만 받으시고 혼은 받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가서 진리만 알 뿐 이 땅에서 눈물, 슬픔, 가난, 질병 등 혼의 작용을 통해 경작받은 일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천국의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없고 중심에서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느낌과 함께 뇌세포 안에 입력하고, 그 입력한 것을 다시 떠올려 내는 모든 것이 혼의 작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과 혼을 함께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기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큰소리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 또한 큰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였기에 더욱 힘써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기도를 하신 것은 하나님 뜻을 모두 이루었음을 나타냅니다.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당당히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서는 가상칠언을 남기고 운명하셨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53절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다 헐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소 휘장은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쳐 놓은 긴 커튼을 말합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고,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하루 들어가 죄인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때부터 일반 사람도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죄의 담을 헐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때도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한 것입니다(히 10:19~20).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했는데, 이는 산천초목 모든 것이 움직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탄식하시는 소리로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음에도 완악하여 끝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대해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한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많은 무덤이 열렸는데,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삼 일 만에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뒤에 그들도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믿는 사람마다 죄를 용서받고 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함을 증거로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우치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1. 가상칠언 6언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2. 가상칠언 4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7언에서는 ()라고 부르셨다. 죄를 대속해 주는 ()로서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3. 성소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을 다 헐어 주셨다는 뜻이다.

• 금주 과제

〈지난주 설교 요약, 구역공과〉 읽고 복습하기.

• 알고 넘어갑시다!

◆ 영, 혼, 육

영이란, 죽거나 썩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 영원한 것으로 생명이요 진리 자체를 말한다.

혼이란, 사람의 뇌세포 안에 있는 기억 장치와 그 안에 입력된 지식들과 그것을 떠올리는 생각의 작용을 통틀어 말한다.

육이란, 육적인 의미는 살 즉 몸을 말하고, 영적인 의미는 시간이 흐르면 썩고 변질되어 없어지는 것과 추하고 더러운 비진리를 말한다.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pbooks.co.kr ☎ 1544-9020)
- 예스24 (www.yes24.com ☎ 1544-3800)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 ☎ 02-818-7241)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1대대교구장: 이미경

대 교 구 장: 조혁희

1교구장	최성숙	구로구(가리봉동134-130번지)
2교구장	권영남	구로구(가리봉동 00-133번지, 구로3동 125-252번지, 구로3동 1123-125, 1274번지)
3교구장	장정미	구로구(가리봉2동, 구로본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256, 773-851, 1271, 1278-1279번지,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56
4교구장	최영신	구로구(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향동, 은수동, 궁동)
5교구장	이석규	영등포구
6교구장	류순주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2대대교구장: 조대희

대 교 구 장: 조수열

7교구장	이성숙	금천구(가산동)
8교구장	김영순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9교구장	최영자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온사동, 옥길동)
10교구장	안성현	광명시(하인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11교구장	조은영	동작구(삼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대방동, 노량진동)
12교구장	임학영	동작구(신대방동, 신대방2동)
13교구장	정진영	관악구
14교구장	서덕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3대대교구장: 이미영

대 교 구 장:

15교구장	문신현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6교구장	박금미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17교구장	차경숙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18교구장	황미경	안산시, 시흥시
19교구장	박광현	부천시
20교구장	이영인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21교구장	이풍근	인천시

중국대교구장: 황금란

중국1교구장	정규원	중국동포 구로구
중국2교구장	오인숙	중국동포 서울시(구로구 제외), 경기도
중국3교구장	윤영자	중국인
해외교구장	문신현	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부설 기관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님
문의전화/ 02-818-7102

※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예배는 없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 소식

- 당회장님의 저서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스웨덴어 종이책으로 발간되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 세르비아어, 「젓과 꿀이 흐르는 땅」 네덜란드어,
「나의 삶 나의 신앙1」 체코어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 신앙칼럼이 「기독교교신문」, 「시사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만민뉴스 한글(965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임시 사무연회가 다음 주일(4월 10일) 저녁예배 후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 안건: 몰도바 만민교회 알렉산드르 파바라누 선교사 목사 안수 청원 건
- 2022 부활절 특별찬양이 4월 15일 금요일 2부 시에 있습니다.
※ 찬양인도: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 제목: “부활의 기쁨”
- 부활절 기념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를 여성교회 총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 대상: 전 성도(개인, 단체 가능)
※ 접수일자: 4월 14일 목요일(오전 10시 ~ 오후 3시)
※ 접수장소: 신학교 3층 회의실
※ 시상: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팀, 장려상 5팀, 참가상
※ 문의: 여성교회 총연합회 (이옥주 권사 ☎ 010-5395-1762)
- 4월 추천도서는 주님의 자취(상)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림북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 당회장님 저서를(주보 맨 뒷장 참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교회 소식

구미만민교회(담임 최제수 목사) 창립 25주년 기념예배

※ 일시: 4월 3일(주일) 오후 3시

※ 설교: 최제수 목사

속초만민교회(담임 박종대 목사) 창립 18주년 기념예배 및 권사 취임

※ 일시: 4월 10일(주일) 오후 3시

※ 강사: 정철수 목사

• 감사드립니다.

강단헌화/ 중국 2교구(꽃꽂이 봉사: 예배국 미화부, 시설관리국)

지성전	주 소	담당/연락처
강 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검 단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차경숙 전도사 010-2290-1856
부 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북 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문신현 목사 010-7736-9333
분 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세신빌딩 401호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수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이영인 전도사 010-4820-1700
안 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황미경 전도사 010-9636-7977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이 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 B/D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GCN,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4/3 일

- 00:00 - '십자가의도 10' 이재록 목사
- 05:00 - '순교' 이수진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89' 이재록 목사
- 18:30 - '영의 흐름 5' 문태규 목사

4/4 월

- 01:00 - '성령과 불세례' 이수진 목사
- 07:05 - '창세기 강해 90' 이재록 목사
- 08:00 - '요한계시록 강해 32' 이재록 목사
- 10:20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1' 이재록 목사
- 13:00 - '욥의 행사' 이수진 목사
- 19:30 - '우리 삶의 등불 5' 이재록 목사

4/5 화

- 01:00 - '사람이다스러야할몸의행실4' 이수진 목사
- 08:00 - '요한계시록 강해 33, 34' 이재록 목사
- 10:20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2' 이재록 목사
- 12:05 - '믿음을 척량하시니 9' 이재록 목사
- 14:00 - '십자가의도 11' 이재록 목사
- 15:30 - '일곱 염 3' 이재록 목사
- 18:00 - '스트레스를 이기자' 이수진 목사
- 19:00 - 구역 공과 46

4/6 수

- 00:00 - '십자가의도 13' 이재록 목사
- 01:00 - '3차 영혼육 8'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05:00 - '욥기 강해 6' 이수진 목사
- 06:00 - '믿음을 척량하시니 11' 이재록 목사
- 13:00 - '성령의 9가지 열매 4' 이재록 목사
- 15:30 - '사랑 1' 이재록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92' 이재록 목사
- 18:00 - '우리 삶의 등불 32' 이재록 목사

4/7 목

- 01:00 - '욥기 강해 7' 이수진 목사
- 07:05 - '창세기 강해 93' 이재록 목사
- 08:00 - '요한계시록 강해 37' 이재록 목사
- 10:20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4' 이재록 목사
- 13:00 - '성령의 9가지 열매 5' 이재록 목사
- 14:00 - '십자가의도 13' 이재록 목사
- 15:30 - '사랑 2' 이재록 목사
- 19:40 - '절과 꿀이 흐르는 땅 1' 이수진 목사

4/8 금

- 08:00 - '요한계시록 강해 38' 이재록 목사
- 12:05 - '믿음을 척량하시니 12' 이재록 목사
- 14:00 - '십자가의도 14' 이재록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94' 이재록 목사
- 19:00 - 천지창조의 섭리 17
- 20:40 - 인도 연합대성회 4

4/9 토

- 07:05 - '창세기 강해 95' 이재록 목사
- 10:00 -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 이재록 목사
- 12:05 - '믿음을 척량하시니 13' 이재록 목사
- 19:40 - '우리 삶의 등불 65' 이재록 목사

✦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824-7107 / webmaster@gcntv.org)

✦ 유튜브 GCN방송 채널 및 KT olleh tv 882번(HD채널, 별도 편성)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위성 A/S 문의: 1577-2073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 10분
- 운전을 위한 기도_ 20분
- 3분 설교_ 30분
- 환자 기도_ 40분, 41번(영어), 42번(불어), 43번(중국어)
- 찬양_ 50, 60분
- 하루를 마치는 기도_ 70분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KoreaSat5 위성방송, KT olleh tv 882번,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_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_ 오후 3시/ 수요예배_ 오후 7시
금요일아예배_ 오후 11시
다니엘 철야 기도회_ 매일 오후 9시
- ▶ 기타 녹화 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anmin.org
-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m.manmin.org
- GCN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gcntv.org
- GCN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m.gcntv.org

- Apr. 3(Sun.)

(Ephesians 6:18) “With all prayer and petition pray at all times in the Spirit, and with this in view, be on the alert with all perseverance and petition for all the saints.”

- Apr. 4(Mon.)

(Philippians 2:3) “Do nothing from selfishness or empty conceit, but with humility of mind regard one another as more important than yourselves;”

- Apr. 5(Tue.)

(Philippians 2:4) “Do not merely look out for your own personal interests, but also for the interests of others.”

- Apr. 6(Wed.)

(Philippians 2:5) “Have this attitude in yourselves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 Apr. 7(Thu.)

(Philippians 2:12) “So then, my beloved, just as you have always obeyed, not as in my presence only,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 Apr. 8(Fri.)

(Philippians 2:13) “For it is God who is at work in you, both to will and to work for His good pleasure.”

- Apr. 9(Sat.)

(Philippians 3:20) “For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from which also we eagerly wait for a Savior, the Lord Jesus Christ;”

금주의 성경구절

4월 3일(주일)

(엡 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4월 4일(월)

(빌 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월 5일(화)

(빌 2:4)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4월 6일(수)

(빌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4월 7일(목)

(빌 2: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4월 8일(금)

(빌 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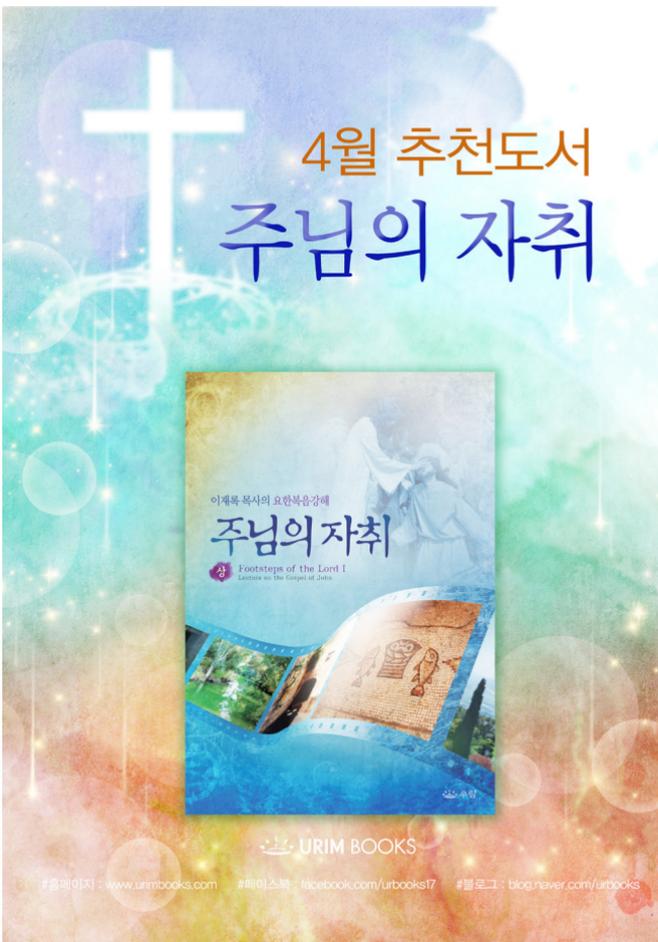
4월 9일(토)

(빌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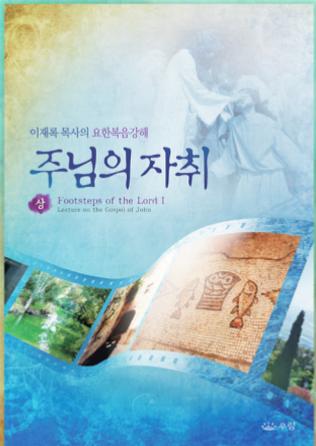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 이재록 목사 간증 수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상·하)
지옥
영혼옥(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자취(상·하)/ 요한복음강해
고린도전서강해(상·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상·하)/ 음기강해
요백/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눈물/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침서
깨어난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의 기본
지혜/ 자기개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성경과 권능 시리즈
(2주연속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입문편 1
내가 사행하리니/ 입문편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입문편 3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실천편 2
권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네 영혼이 잘될까?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나의 택한 아람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성경 인물 시리즈 2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성경 인물 시리즈 3
엘리아를 나뉘어 보내리니/ 성경 인물 시리즈 4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재설교 모음 1 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 2. 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 3. 예배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 4. 기도편
치료하는 영약도/ ... 5. 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 6. 심계편
참된 복을 좇는 자/ ... 7. 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 8. 열재양편
기이한 일
희한한 능
등불/ 칼럼 모음
지혜의 샘/ 잠언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네딕도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지혜의 샘(상·하)/
사명과 헌신/ 헌신예배 설교 모음 1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겉옷을 내어 버리라/ ... 2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 3
옛새 동안의 만나(상·하)/ 설교자료, 구역공과
간추었던 만나 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 3
하나님은...!



4월 추천도서
주님의 자취



URIM BOOKS
홈페이지 : www.urimbooks.com #페이스북 : [facebook.com/urbooks17](https://www.facebook.com/urbooks) #블로그 : blog.naver.com/urbooks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집
갈릴리여 꽃보다 붉은 사랑이여/ 성자순례 화보집
학습 세례 문답서
한디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 십자가의 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천국(상)
이동용(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심계편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어린이 ①, ②
십자가의 도 ①, ②
선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설리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학생용(청소년 Bible Study)
젓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러야 하는 몸의 행실
십자가의 도 ①, ②
만나Time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상!
선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
• 전자책 구입 : 국내 주요 서점 리디북스, 아마존닷컴(amazon.com), Google Play, iBookstore
•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종이책 구입 가능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https://www.facebook.com/urbooks17)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정기 예배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1부 대예배	오전 10:00	각 성전
주일 2부 대예배	오전 11:30	각 성전
주일 저녁 예배	오후 3:00	각 성전
빛과소금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9:00	각 성전, 북부·강동지성전
빛과소금 요식업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11:00	각 성전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00	각 성전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00	각 성전
새벽예배	매 일 오전 5:00	각 성전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화요일 오후 8:30	각 성전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수요일 오후 9:00	각 성전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각 성전
아동주일학교(주일예배)	대예배/ 오전 11:40 저녁예배/ 오후 1:30	

※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시간 및 관련 문의 : 만민중앙교회 기획실 ☎ 02-818-7236